

**뉴욕증시 - 유가 하락·동시만기 영향...다우 2.1% ↓**

1. 국제유가, 공급 과잉 우려에 다시 7년 최저치로 추락 ...-0.6%
2.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'네 마녀의 날' 악재
3. 美 서비스업 지표 부진
  - \* 12월 서비스PMI 56.1 → 53.7 (예상:56.0) ...예상 하회
4. 리치먼드연은 총재 "금리인상 미국 경제 성장 신호"
5. 中-11월 주택가격(MoM) 0.07% → 0.19% ↑ ...7개월 연속 상승세
  - 유로존-10월 경상수지 30.1B → 20.4B (예상:29.9B)
6. BOJ, 연간 자산매입 유지...ETF 매입 확대
  - ...일본 증시, BOJ 양적완화 보완책 실망감에 하락
7. 구리가격, 구리 제련소들 4분기 이사회 미팅 기대감에 3.38% 상승
  - ...중국 제련소들이 대량의 구리 비축량을 사 들이는 것에 대한 논의

국제 증시			국제 상품		
DOW30	17128.55	(-2.1%)	WTI	34.73	(-0.6%)
NASDAQ	4923.08	(-1.59%)	COMEX금	1065.00	(+1.5%)
S&P500	2005.52	(-1.78%)	COMEX구리	2.1125	(+3.38%)
KOSPI	1975.32	(-0.13%)	주요국가 10y국채		
KOSDAQ	667.45	(+1.42%)	한국	2.118%	(-4.4bp)
국제 통화			미국	2.197%	(-3.9bp)
유로/달러	1.0872	(+0.0055)	영국	1.83%	(-1.9bp)
유로/엔	131.34	(-1.39)	독일	0.55%	(-5.1bp)
달러/엔	121.24	(-1.46)	프랑스	0.89%	(-4.5bp)
달러/위안	6.4814	(+0.0057)	이탈리아	1.57%	(-5.7bp)
원/달러	1183.00	전일 1180.10	스페인	1.69%	(-4.5bp)
NDF	1181.00 / 1182.00원	2.25원 하락	그리스	7.77%	(-15.5bp)

주간 예정 지표			
국가/날짜	경제지표	Previous	Forecast
<b>12월 21일</b>			
미국	-시카고연은국가활동지수	-0.04	
유로존	-12월 소비자신뢰지수	-6.0	-5.9
독일	-11월 PPI (MoM)	-0.4%	-0.2%
<b>12월 22일</b>			
미국	-3분기 GDP (QoQ)	2.1%	1.9%
	-11월 기존주택판매	5.36M	5.37M
독일	-1월 GfK소비자신뢰지수	9.3	9.3
영국	-12월 GfK소비자신뢰지수	1	1
<b>12월 23일</b>			
	-11월 신규주택판매	495K	505K
	-12월 미시간대소비자태도지수	91.8	92.0
미국	-11월 핵심내구재주문 (MoM)	0.5%	0.1%
	-11월 내구재주문 (MoM)	2.9%	-0.6%
	-11월 개인소비 (MoM)	0.1%	0.3%

영국	-3분기 GDP (QoQ)	0.5%	0.5%
	-3분기 경상수지	-16.8B	-21.5B
[ Early close at 13:30 : Christmas Eve ]			
[ BOJ의사록 ]			
미국	-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	271K	270K
[ Christmas Day ]			
일본	-11월 가계지출 (MoM)	-0.7%	-0.3%
	-11월 CPI (YoY)	-0.1%	0.0%
	-11월 실업률	3.1%	3.2%
	-11월 주택착공 (YoY)	-2.5%	1.0%

### 1. 전일 장중 동향

\*KTB : 시가 109.40 / 증가 109.54

\*LKTb : 시가 125.40 / 증가 125.75

1)국고채 금리는 외인의 선물 매수와 장내시장에서 초장기물 매수가 동시에 출현하며 낙폭을 확대. 외인은 지난 2013년 9월 이후 처음으로 KTB를 2만계약 이상 사들임.

-장내시장에서 30년물에 단타 매매 세력이 붙으면서 국고 30년물 금리는 20년물보다 떨어지기도함. 장 마감 까지 강세 분위기가 지속하며 장을 마침.

2)국채선물은 상승폭을 확대. 3년과 10년 국채선물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.

-일본에서 경기 부양 보완책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기대감이 생김. 미 금리 인상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채권 가격 하락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보는 분위기. 강세로 마감.

3)CRS 금리가 미 Fed의 금리 인상 직후 올랐다가 하루 만에 하락 전환. 에셋스와프 물량이 중·장기구간에 집중되면서 전체적인 하락 압력으로 작용.

-CRS 5년과 6년 구간에 오퍼가 많았는데, 에셋스와프 물량이 크게 나옴. FX스와프도 비드가 나오면 곧바로 체결되는 등 오퍼가 상당히 많음.

4)IRS 금리는 장기구간 위주로 하락하면서 전일에 이어 플래트닝 흐름을 보임. 장 막판 10년 국채선물이 호가가 밀리면서 끝나 IRS도 막판에 비드가 나오며 강세 일부를 되돌림.

국내 주요 금리			BOND SWAP SPREAD		
<b>3y</b>	1.693%	(-3.3bp)	<b>3y</b>	-2.1bp	(+0.8bp)
<b>5y</b>	1.853%	(-4.6bp)	<b>5y</b>	-8.5bp	(+1.9bp)
<b>10y</b>	2.118%	(-4.4bp)	<b>10y</b>	-16.3bp	(+1.2bp)
<b>CD</b>	1.670%	(0.0bp)			

IRS OUTRIGHT			IRS SPREAD		
<b>1Y</b>	1.6175 %	(-1.0bp)	<b>1*2Y</b>	1.50	(-0.25bp)
<b>2Y</b>	1.6325%	(-1.25bp)	<b>2*3Y</b>	4.00	(-1.25bp)
<b>3Y</b>	1.6725%	(-2.5bp)	<b>2*5Y</b>	13.50	(-1.5bp)
<b>5Y</b>	1.7675%	(-2.75bp)	<b>3*5Y</b>	9.50	(-0.25bp)
<b>7Y</b>	1.8500%	(-3.0bp)	<b>5*7Y</b>	8.25	(-0.25bp)
<b>10Y</b>	1.9550%	(-3.25bp)	<b>5*10Y</b>	18.75	(-0.5bp)